

國語史資料의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安 秉 禧*

I

國語史資料를 原典인 古書에서 인용할 경우에 書名과 卷次의 表示는 필수적이다. 하나의 古書가 하나의 書名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書名을 문제삼는 것은 새삼스럽기조차 하다. 가령,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의 合編인 月印釋譜와 刊經都監 최초의 佛經諺解인 楞嚴經諺解란 書名은, 적어도 國語學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른 書名으로 부른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¹⁾ 그러나, 다른 分野로 눈을 돌리면, 예컨대 佛敎나 書誌學을 전공하는 學者들에게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佛敎學者들이 만든 佛書目錄을 보거나, 圖書館에 가서 書誌學者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古書目錄을 검색하면 누구나 실감하게 된다.

奎章閣目錄²⁾ 보아도 月印釋譜는 子部, 釋家類에 등록되어 있는데, 같은 책이 月印千江之曲이란 書名으로 集部, 詞曲類에 나오고 있다. 楞嚴經諺解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首楞嚴經으로만 등록되어 따로 실려져 있을 뿐이고, 楞嚴經諺解는 없다. 永嘉集諺解와 圓覺經諺解도 禪宗永嘉集과 永嘉集,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圓覺

* 人文大 教授

- 1) 國語史資料를 종합적으로 다룬 최현배(1961), 小倉進平(1940) 등을 참조할 것. 이밖의 國語史에 관한 論著에서도 확인된다.
- 2) 서울大圖書館(1981)의 줄인 이름으로 사용한다. 앞으로 古書目錄에 나타나는 잘못이나 혼란은 주로 이 책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目錄이기 때문에, 그 뒤됨이를 정확하게 알아 두자는 뜻에 말미암는다. 그런데, 奎章閣目錄은 이보다 앞서 간행된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1965), 서울大圖書館(1966, 1973) 등의 記載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잘못된 이전 目錄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經으로 실려 있다. 이 경우는 索引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으므로 그나
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索引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成宗때의 諺解本인 佛頂心
經은 1631년(仁祖 9) 尙州奉佛庵에서 重刊되었는데, 이 책이 위의 目錄
에서 佛頂心陀羅尼經과 觀音經으로 등록되어 있다. 같은 책을 2개 이상
의 書名으로 目錄에 올리는 일은 目錄編纂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러
한 예로써 國語學界에서 통용되는 書名이 다른 分野에서는 그대로 통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古書의 書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삼는 理由인 것이다.

원래 書名이란 책의 이름이다. 책과 이름이 1 대 1로 되는 것이 理想
이다. 그러나, 책의 內容에 비추어 길게 붙여진 書名은 줄여서 부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 긴 書名을 갖은이름(具稱), 줄인 書名을 줄인이름
(略稱)이라 부르기로 하자. 줄인이름은 더욱 줄여질 수 있다. 한편 이
미 붙여진 書名보다 그 內容을 더욱 잘 알리는 이름으로 부르는 일도
생긴다. 이것을 단이름(別稱)이라 하기로 하자. 이리하여, 하나의 古書
에 갖은이름, 줄인이름, 그리고 단이름으로 된 여러 書名이 있게 된다.
國語史資料인 경우에는, 諺解와 口訣을 원래의 書名에 덧붙이면 書名은
더 늘어난다. 國語學界의 書名과 古書目錄의 書名이 어긋나는 것은 이
와 같이 복합적인 要因에 말미암는다.

이에 우리는 國語史資料인 古書에 대하여 書名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書名
을 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보려고 한다.

書名の 문제에 이어서, 古書의 卷冊에 대하여도 논의하려고 한다. 資
料의 出處를 말하려면 卷次와 張次로써 하여야 하는데, 책에 따라서 卷
數와 冊數에 혼란이 있는 것이다. 물론 出處를 章次로써 표시하는 龍飛
御天歌와 같은 古書나, 1권 1책으로서 張次만으로서 표시하는 古書에서
는 卷冊의 문제가 없다. 1권 2책이거나 1부 2권 이상인 古書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分量이 작은 책 2부 이상이 合部 1책인 경우에도 出處 表示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古書目錄에서도 보게 된다. 정확한 出典의 明示를 위하여 書名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II

洋裝書의 書名은 表紙, 책등(書背), 標題紙(Title page) 등에 나타난다.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目錄에서는 標題紙의 것으로 기준을 삼는데, 그 差異가 크지는 않다. 우리나라 古書의 書名은 表紙, 本文의 앞뒤, 版心, 그리고 序跋과 目錄의 첫머리등 여러 곳에 나타나며, 그들 사이에 차이를 보임이 보통이다. 하나의 古書에 대한 복수의 書名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거의 모든 古書에 標題紙가 없으므로, 차이가 나는 書名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된다. 書誌學에서는 本文 첫머리의 書名을 卷頭書名이라 하여 기준으로 삼으나, 때로는 다른 書名을 취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에 나타나는 書名을 하나 하나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古書의 書名을,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기로 한다.

- (1) 卷頭書名
- (2) 卷末書名
- (3) 目錄, 凡例書名
- (4) 序, 跋文書名
- (5) 版心書名
- (6) 外題(表紙書名)
- (7) 書根題
- (8) 內賜記書名

卷頭書名은 本文 장 1의 제 1행에 있는 書名으로, 內題 또는 卷首題,

卷頭題라고도 하는데 이어 編著者의 記名이 있고, 行을 바꾸어 本文이 시작 된다.³⁾ 이 書名은 보통 號은 이름이므로, 書誌學에서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公私所藏의 주요 古書의 目錄이 標目(Heading)을 編著者로 하느냐, 書名으로 하느냐에서 異見을 보이나, 卷頭書名으로 目錄의 書名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白麟 1966, 千惠鳳 1970 참조). 같은 古書가 다른 書名으로 한 目錄에 등록 된 일은 순전히 目錄作成者의 作業上 過誤일 뿐이다. 따라서, 楞嚴經諺解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金剛經諺解는 金剛般若波羅蜜多經으로 정리되어 目錄에 올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 作業基準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月印釋譜를 月印千江之曲으로 다루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月印釋譜의 卷頭書名은 雙行으로, 예컨대 권1의 경우 月印千江之曲第一, 釋譜詳節第一로 되어 있는데, 제1행만 보면 月印千江之曲이 될 수밖에 없다.⁴⁾ 成宗때의 乙亥字本인 金剛經三家解의 卷頭書名도, 刊經都監 刊行的 木版本인 金剛經諺解와 똑같이 金剛般若波羅蜜多經이다. 經本文만 같을 뿐, 註解가 완전히 다른 이들 古書에, 같은 書名이 주어져서 目錄에 등록된 것이다. 信章閣目錄이 바로 그러하다.

卷頭書名에서 주의할 것에 冠稱이 있다. 世宗御製訓民正音의 世宗御製가 그러하다. 佛書에 특히 예가 많은데, 佛說阿彌陀經, 佛說大報父母恩重經등과 같이 佛說을 머리에 얹은 예인 것이다. 관용으로는 冠稱이 없어도 書名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하여, 古書目錄에 따라서는 卷頭書名을 엄격히 다루어서 冠稱까지 포함하는 일도 있고, 冠稱을 포함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

3) 本文의 첫머리가 圖版으로 된 책에서는 耳格의 안에 書名이 나타난다. 이 書名을 耳題라고 하는데, 卷頭에만 있을 경우에는 제1행에 있는 것과 같이 卷頭書名으로 다루어진다. 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가 그러한 예다.

4) 月印釋譜를 月印千江之曲으로도 등록한 古書目錄은 信章閣目錄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제1,2행의 書名을 한처저 올린 것도 있다. 國學資料保存會(1971)가 그것이다.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이라 한 것이다.

다).

卷末書名은 本文이 끝난 다음에, 行을 바꾸어서 써놓은 書名으로, 裏題 또는 尾題라고도 한다. 책에 따라서는 아예 없애기도 하나, 쓸 경우에는 보통 卷頭書名이 그대로 사용된다. 위의 卷頭書名에서 예시한 古書가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가 있고, 그것이 더욱 중요한 書名일 수도 있다. 佛頂心經은 佛頂心陀羅尼經, 佛頂心療病救產方, 佛頂心救難神驗經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卷頭書名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佛頂心經으로 書名을 삼을 수도 있다. 꼭같이 3권인 三綱行實圖의 각 권 卷頭書名인 三綱行實孝子圖, 三綱行實忠臣圖, 三綱行實烈女圖에서 三綱行實圖를 書名으로 하는 일과 일치한다. 그런데, 佛頂心經에는 권 아래만 卷末書名이 佛頂心經下卷으로 되어 있다. 漢文本에서는 권上, 中도 각각 佛頂心經上卷, 中卷이다. 또다른 예로서, 四法語와 重刊警民編이 있다. 四法語는 1467년(世祖 13)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牧牛子修心訣이나 蒙山法語와 合部로 간행되었는데, 卷頭書名이 法語, 卷末書名이 四法語인 것이다. 수록된 法語가 4편이고, 蒙山法語를 法語라고 줄이기도 하므로, 卷末書名이 오히려 나아 보인다. 重刊警民編은 金正國이 1519년(中宗 14) 간행한 原刊本을 증보하여 1579년(宣祖 12) 晉州에서 간행된 책이 현재로는 가장 오래다. 卷頭書名은 警民編이나, 卷末書名인 重刊警民編이 책의 性格을 뚜렷이 하여 주는 것이다.

目錄書名과 凡例書名은 目錄과 凡例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書名이다. 卷末書名과 같이, 책에 따라서는 目錄과 凡例가 없기도 하고, 있어도 바로 目錄, 凡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이 目錄, 凡例書名이 그 책의 實은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이다. 崔世珍이 1517년(中宗 12)의 四聲通解보다 앞서 번역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老乞大와 朴通事가 그 예다. 이들의 卷頭書名과 卷末書名은 老乞大, 朴通事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凡例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라 하여 四聲通解에

실려 있으므로, 凡例書名으로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國語學界에서는 이들 書名이 통용되게 된 것이다. 또다른 凡例書名으로는 集覽이 저명하다. 崔世珍이 老乞大와 朴通事의 난해한 語句를 가려 뽑아서 설명한 語彙集인 老朴集覽이 그것이다. 內容이 字解, 老乞大集覽, 朴通事集覽의 3부로 되어 있는데, 이 3부를 전체로 부른 것은 凡例書名인 集覽인 것이다. 1677년(肅宗 3)의 朴通事諺解序에서 老朴輯覽(단, 集覽과 輯覽은 동용)이라 있을 뿐 아니라 集覽이 普通名詞이므로, 老朴集覽으로 書名을 삼고 있는 것도 마치고 보면 凡例書名에 말미암는다고 하겠다.

序文書名과 跋文書名은 序跋의 첫머리에 나오는 書名이다. 引이나 箋文의 첫머리에 있는 書名도 이 범주에 속한다. 首陽大君의 釋譜詳節序와 世祖의 月印釋譜序등이 그 예들이다. 특히 月印釋譜란 書名の 근거는 이 序文書名에 있다. 그런데, 書名の 贅은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 書名으로는 줄인이름이 사용된다. 杜詩諺解의 卷頭書名은 分類杜工部詩이나, 序文書名은 原刊本の 曹偉의 杜詩序, 重刊本の 張維의 重刻杜詩諺解序등이 그러한 줄인이름으로 되어 있다. 楞嚴經諺解도 箋文書名이 首楞嚴經으로 되어 있어서, 奎章閣目錄에서 書名으로 채택되기도 한 것이다.

版心書名은 版心題라고도 하는 것으로, 版心の 上下魚尾 사이에 쓰여진 書名이다. 月印釋譜, 四聲通解등이 그것이다. 이 版心書名도 대개의 경우 줄인이름이 사용된다. 四聲通解의 대부분의 重刊本은 通解로서 版心書名을 삼으며, 楞嚴經諺解와 法華經諺解등 刊經都監 간행의 諺解本의 경우에도 楞嚴經과 法華經등으로 줄인이름이 사용되어 있다. 그런데, 版心書名이 卷頭書名보다 중시되어야 할 때도 있다. 金剛經三家解의 卷頭書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金剛經諺解와 같지만, 版心書名은 金剛經三家解로서 金剛經諺解의 金剛經과 구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外題는, 만이름인 表紙書名 또는 表題와 같이 이를 그대로 表紙의

바깥에 나타난 書名이다. 우리나라의 古書에는 外題를 보통 筆墨으로 表紙에 직접 써놓았으나, 간혹 題簽이 붙여진 경우도 있다. 題簽은 書名을 인쇄하거나 써서 表紙에 붙인 쪽지를 가리킨다. 인쇄된 題簽은 매우 드문데, 世祖때의 佛書에 그러한 예가 있다. 乙亥字本 楞嚴經諺解와 木板本 楞嚴經諺解의 善本에 大佛頂首楞嚴經이라 인쇄된 題簽이 있다.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인쇄된 題簽이 龍龕手鑑의 信眉手澤本(日本內閣文庫所藏)과 가람文庫와 誠庵文庫의 金剛經三家解에도 있는 것을 보면, 이들 題簽은 世祖때 것으로 생각된다. 筆墨으로 表紙에 쓰여진 外題는 書外題라 하여, 題簽과 구별한다. 老朴集覽의 原表紙에 있는 集覽이 그러한 예가 된다. 凡例書名을 써 놓은 것이다.⁵⁾ 書外題도 긴 書名인 경우, 줄인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런데, 위 楞嚴經諺解의 題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外題가 줄인이름이기는 하나, 序文書名이나 版心書名보다는 卷頭書名의 갖은이름에 가깝다.

이 外題에는 책의 단이름이 사용되기도 한다. 佛頂心經의 몇몇 책에는 書外題로 觀音經이 나타난다. 奎章閣目錄에서 觀音經이라 한 책도 그러하다. 佛頂心經의 內容이 觀世音菩薩이 陀羅尼로써 衆生의 苦難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원래 觀音經이란 法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만을 독립시킨 것이므로, 이 佛頂心經을 觀音經이라 하여서는 혼동될 염려가 있다. 이에 書外題는, 잘못된 書名이 있으므로, 특히 그것이 後代의 改裝된 表紙에 나타난 경우에 그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⁶⁾ 外題는, 이와 같이 무시하여도 좋을 경우가 있지만, 卷頭書名보다 책의 內容에 부합하여 書名으로 채택되어야

5) 東國大圖書館 소장인 이 책의 書外題를 李丙峙(1966:14)에서는 「□□集覽 合部」라 하여, 위에 두 글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바로는 「集覽 合部」란 外題와 「字解, 老乞大, 朴通事」란 目錄外題뿐이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觀音經이란 書名은 1958년의 影印本(서울 正陽社)에서도 채택되었으나, 佛頂心經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誠庵文庫 소장의 五大眞言의 書外題도 觀音經이므로, 外題에서의 書名の 혼동은 매우 크다.

할 경우도 있다. 國語史資料가 아닌, 國語學研究書인 周時經의 대한민국어문법이 그 예다. 卷頭書名에 따라 대한민국어문법이다 불리고 있으나, 內容은 著者 스스로 跋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國文이라 일컬어진 한글과 音韻論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尙洞青年學院에서 學生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講義教材를 모아서 成冊한 것으로, 처음 國語文法 전반을 다루려다가 실지로는 위의 內容만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表紙를 붙여 成冊하면서 題簽을 國文講義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外題에 따라 書名을 國文講義라 함이 옳다고 생각된다.⁷⁾

書根題는 아래쪽 書口에 쓰여진 書名이다. 書根은 책을 세웠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이다. 古書는, 洋裝書와 같이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눕혀 싸두기 때문에 書根에 書名을 써두면 찾아보기에 편리하다. 洋裝書의 책등(書背)에 書名을 인쇄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書根題는 줄여서 書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版心題와 같은 줄인어름이 사용된다. 심한 경우에는 1字로도 줄인다. 楞嚴經諺解 중에 「楞嚴」 또 「楞」이라 한 것이 그 예다. 外國에서는 書根題를 인쇄하는 일도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책들은 筆墨으로 써놓은 것이다. 그 筆寫의 年代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書根題는 書名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못 주는 것이다.

內賜記書名은 책을 官僚나 機關에 頒賜할 때, 앞 表紙의 안쪽에 쓰여진 內賜記에 나오는 書名이다. 책이 간행된 직후에 頒賜되고 內賜記도 쓰여지므로 刊年の 推定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지만, 書名에 대하

7) 이 책은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이므로, 잘못 알려진 것이 이밖에도 있다. 가령 跋文을 本文의 끝에 附記한 부분부터 삼는 일등이 그것이다. 張次를 보면, 本文이 1에서 68, 跋文이 1에서 5(版心書名은 모두 국문으로 되어 있어, 國文講義란 書名을 뒷받침한다.) 까지인데, 本文이 끝난 68b에 한글 創制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 설명은 內容과 文體에서 앞뒤와 연결이 안 된다. 周時經이 白紙로 남는 곳을 활용하여 附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附記를 張次가 새로 시작하는 跋文의 첫머리로 삼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여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內賜本의 성격상 官版本에서만 볼 수 있음이 아쉽다. 內賜記는 個人에 대한 것과 機關에 대한 것이 다르나 書名의 표기에서는 공통된다. 예를 하나씩 들면 다음과 같다.

萬曆二年(1574, 宣祖 7) 二月 日 / 內賜左承旨鄭惟一呂氏鄉約一件 / 命除謝 / 恩 / 都承旨臣柳(手決)

萬曆四十六年(1618, 光海 10) 正月 日 / 內賜新續三綱行實一件五臺山上 / 右承旨臣李(手決)

전자는 卷頭書名이 朱子增損呂氏鄉約인 책을 文臣 鄭惟一, 후자는 卷頭, 序文書名이 東國新續三綱行實圖로 된 책을 五臺山史庫에 頒賜하면서 쓰여진 것이다. 모두 줄이름이 사용되어 있다. 대체로 外題에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書名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內賜記書名이나 表紙書名이 卷頭書名보다 긴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693년(肅宗 19) 仁祖의 生父인 元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한 元宗字로 간행된 孟子諺解가 그것이다. 內賜記와 外題에는 御筆孟子諺解이지만, 卷頭書名은 孟子諺解라고만 되어 있다. 肅宗이 직접 짓고 쓴 跋文이 御製御筆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跋이므로, 跋文書名은 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라 하겠다. 奎章閣目錄에는 卷頭書名대로 孟子諺解로 되었는데, 다른 孟子諺解와 구별하기 위하여는 이 책을 內賜記書名이나 跋文書名 중의 하나로 함이 좋을 듯하다. 跋文書名은 너무 길므로 (긴 書名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內賜記書名에 따라 御筆孟子諺解로 하거나, 跋文書名에서 元宗을 마서 元宗御筆孟子諺解로 하는 것이 편리하리라 생각된다.

이밖에 書名은 序跋등 책의 附屬文字의 本文에 나타나기도 한다. 金剛經三家解란 書名이 그 책의 跋文 안에서 三家解(韓繼禧), 金剛經三家解(姜希孟)로 나타나며, 楞嚴經諺解의 跋文에는 首楞嚴經(信眉, 金守溫), 楞嚴經(韓繼禧?), 楞嚴(世祖)이 나타난다. 이들은 줄이름으로서, 그대로 통용되었다고 생각된다. 眞言勸供과 三壇施食文이 合部로

된 책의 跋文은 六祖大師法寶壇經에도 그대로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두 책을 施食勸供과 六祖壇經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이 그대로 통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記錄에서도 이들 줄인 이름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古書目錄에서 書名에 혼란이 일어난 것은 卷頭書名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들 통용되는 줄인 이름도 간혹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쨌든, 이상의 說明으로 古書의 書名이 단순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國語史資料인 古書의 書名은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書名の 문제에, 諺解와 口訣을 書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奎章閣目錄에서도 일관된 原則이 없다. 예컨대, 圓覺經諺解를 보면 書名の 갖은 이름에다 「諺解」를 괄호 안에 附記한 것, 「諺解」를 附記하지 않을 뿐 아니라 註記도 없는 것(따라서 漢文本과 口訣本과의 구별이 없는 것), 註記만 한 것의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 註記도 「訓民正音譯解本, 國譯文附, 訓民正音懸吐註釋, 諺解本임」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다른 古書目錄도 비슷하고, 또 國語學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⁸⁾ 이 문제를 포함하여 國語史資料인 古書의 書名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III

먼저 書名에서 諺解와 口訣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보기로 한다. 國語史資料를 다루어보면, 書名에 그것이 명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명시된 경우에는 그것을 書名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위에서 諺解書의 書名에 통일이 없다고 한 것은 주로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명

8) 이 사실은 筆者 자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安秉禧(1979)의 書名에 그러한 혼동이 있다.

시된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老乞大와 朴通事를 인하여 간행한 17세기 후반의 老乞大諺解와 朴通事諺解는 卷頭書名에 따라 불리어지는 책들이다. 16세기 전반에 崔世珍에 의하여 인하여 凡例書名에 따라 불리어지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와 구별되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書名이라 하겠다. 校正廳의 諺解書도 卷頭書名이 小學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다 앞선 翻譯小學(卷頭書名)과 구별되고 있다. 口訣書로는 論語大文口訣과 禮記大文諺讀가 있다. 모두 卷頭書名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明義錄諺解, 十九史略諺解, 種德新編諺解등이 있다.

그런데, 위의 書名 중에는 卷頭書名이 한글로만 되거나, 漢字에 한글로 注音한 것이 있다. 明義錄諺解, 種德新編諺解등은 전자, 校正廳의 諺解書는 후자의 예들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의 目錄에서는 한글表記로써 書名을 삼는 일이 있다. 그리하여, 「소학언휘, 대학언휘」 등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國學資料保存會, 1974등 참조). 그러나, 書名の 漢字에 한글注音을 한 예는, 이밖에 釋譜詳節, 月印釋譜, 蒙山法語諺解 등 諺解를 갖지 않은 卷頭書名에도 보인다. 더구나 이들의 注音은 東國正韻에 따르므로, 그 表記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그 目錄書가 이 경우는 漢字로만 하고 있는데, 이는 東國正韻式 한글注音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한글注音은 물론이고, 한글로만 된 書名도 明義錄諺解등과 같이 版心書名이나 原典書名에 따라 漢字로 표기하고, 굳이 한글로 표기하려면 漢字의 現代讀音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書名에 諺解나 口訣이 나타나지 않는 資料는 나타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卷頭書名에 이은 編著者名의 아래에 譯解, 口訣등 書名으로 포함될 칭호를 갖는 예가 있다. 阿彌陀經諺解의 「御製譯解」, 圓覺經諺解의 「御定口訣／悲覺尊者臣信眉孝寧大君臣補仁順府臣韓繼禧等解」, 牧牛子彥心訣의 「丕顯閣訣／悲覺尊者譯」등 諺解書와 周易傳義口訣의 「康寧殿口訣」등 口訣書가 그러하다. 이들 칭호는 관호에

품든지, 노출시키든지 간에 卷頭書名에 보충함이 무방하다. 그러나, 諺解書의 경우에 「譯解, 解, 譯」 등 刊經都監 刊行的 책에서도 혼란이 있다. 그러므로, 일관적으로 諺解書는 諺解, 口訣書는 口訣을 보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諺解書로, 이밖에도 序跋의 內容에 그러한 칭호를 갖는 것이 있다. 楞嚴經諺解의 箋文에 나오는 「御譯」, 眞言勸供과 三壇施食文, 그리고 六祖法寶壇經諺解의 跋文에 있는 「翻譯」 등이 그것인데, 이 경우에도 諺解로 통일하여 卷頭書名에 붙일 것이다.

그런데, 책의 어디에도 그러한 칭호가 없는 諺解書와 口訣書의 처리가 문제인 것이다. 救急方諺解, 呂氏鄉約諺解 등의 諺解書와 書傳大文口訣, 地藏經口訣의 口訣書가 바로 그러한 책이다. 口訣書는 대부분이 이리해석, 論語大文口訣과 周易傳義口訣이 예외라고 할 정도다. 그것은 어쨌든, 아무런 칭호가 없는 경우에도 諺解와 口訣을 書名에 보충할 필요는 있다.⁹⁾ 예컨대, 乙酉字本인 圓覺經口訣의 口訣이 그러한 보충이다. 이 책의 卷頭書名이나 版心書名 등은 圓覺經諺解와 漢文本 圓覺經의 그것과 꼭같다. 圓覺經諺解는 箋文에 나오는 칭호에 따라 諺解를 書名에 보충한 경우인데, 이 책에 그러한 箋文등이 없다고 하여 圓覺經이라고만 한다면 漢文本과의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呂氏鄉約의 諺解도 그러한 보충의 예다. 呂氏鄉約은 朱子大全에 포함된 漢文本, 單行本으로 인쇄된 諺解書와 借字로 口訣만 달린 口訣書의 3종이 있다. 이 3종을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諺解와 口訣을 각각 諺解書와 口訣書의 書名에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書名에 諺解와 口訣을 보충할 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編著者의 이름에 이은 것이든, 序跋의 내용에지든 보충의 근거를 찾을 수

9) 그러한 보충에 대하여, 目錄에서는 編著者名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와 [] 등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에서는 그러한 구별은 물론이고, 卷頭書名에 諺解와 口訣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과의 구별도 하지 않는다.

있는 경우와 그 근거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 보충의 필요는 諺解書와 口訣書 상호간의 구별, 또는 漢文本과의 구별을 書名으로 보여주자는 데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구별이 굳이 소용없을 경우에는 卷頭書名만으로 書名을 삼는 것이 편리하다. 아주 특수한 예지만, 釋譜詳節도 序文에 漢文本 釋譜詳節을 지은 뒤에 「譯解」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釋譜詳節諺解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諺解書와 같이 原文과 翻譯이 대조되는 체제가 아니며, 더우기 漢文本이 간행된 것도 아니다. 卷頭書名 대로 釋譜詳節이라 하여도 아무런 혼동이 없다. 諺解를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釋譜詳節과는 달리 原文과 翻譯이 대조되어 일반 諺解書의 체재를 갖추고 있더라도, 漢文本이 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혼동이 없으므로 卷頭書名만으로 충분하다. 內訓, 金剛經三家解. 續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등이 그것이다. 三綱行實圖는 漢文本이 있으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혼동이 없는 한 諺解를 보충하지 않음이 續三綱行實圖와 균형을 갖는 書名이 될 것이다. 요컨대 書名에 諺解와 口訣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명시된 卷頭書名이면 그 書名 그대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동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諺解와 口訣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갖은이름이 지나치게 긴 書名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책의 內容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語句를 중간에 삽입한 경우와 첫머리에 엮은 경우가 있다. 太祖實錄, 世宗實錄등을 太祖康獻大王實錄, 世宗莊獻大王實錄등으로 합은 전자의 예이고, 訓民正音, 呂氏鄉約등을 冠稱을 붙여서 御製訓民正音, 朱子增損呂氏鄉約등으로 합은 후자의 예다. 이와 같이 긴 書名은 國語史資料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 古書에도 공통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古書目錄에는 나름대로의 原則을 갖고 있다. 그러나, 目錄을 보면 原則의 적용이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다. 奎章閣目錄에서 書名이 太祖實錄, 朱子增損呂氏鄉約등으로 올려진 것은 바로 그 예증이다. 이에 國語史資料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한다.

전자의 문제는 版心, 目錄, 內賜記書名을 참작하여 중요하지 않은 語句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太祖實錄, 世宗實錄등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佛經에 대단히 많은데, 楞嚴經, 蒙山法語, 六祖壇經 諺解가 目錄에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修萬行首楞嚴經, 蒙山和尚法語略錄, 六祖大師法寶壇經으로 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줄인 이름으로써 書名을 삼는 것은, 國語學界의 慣用에 부합될 뿐 아니라, 攷事撮要의 八道册板과 鍍板考등에서 보는 우리나라 慣用書名에 대체로 합치하는 일이다. 다만 目錄에서는 卷頭書名에 다른 갖은 이름을 註記하고, 또 目錄書名の 根據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후자의 冠稱은 일률로 생략하거나 그냥 두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 책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卷頭書名에 추가로 冠稱을 붙여야 할 경우도 있다. 생략할 書名으로는 御定 奎章全韻, 御製常訓諺解, 佛說阿彌陀經등의 御定, 御製, 佛說등이 있다. 그러나, 같은 御製란 冠稱이지만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御製內訓이 있다. 昭惠王后의 內訓이 成宗때 간행된 뒤에 여러번 중간되었으나, 대체로 原刊本을 답습하였다. 그런데, 1737년(英祖 13) 중간된 內訓은 翻譯을 近代語로써 새로이 하여 卷頭書名까지 御製內訓으로 고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 길의 內訓과 구별하여 御製內訓이라 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이밖에도 朱子增損呂氏鄉約, 增修無冤錄諺解의 朱子增損, 增修등은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國語史資料로는 이들 冠稱이 없는 책이 따로 없으므로, 줄이더라도 혼동이 없기 때문이다. 續三綱行實圖의 續이 이와 같은 部類의 冠稱이지만, 三綱行實圖와의 혼동으로 생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卷頭書名에 없는 冠稱을 덧붙여야 할 예로는 重刊杜詩諺解, 重刊警民編諺解등이 저명하다. 이들은 모두 原刊本인 杜詩諺解와 警民編諺解와 翻譯이나 內容이 달라져서 새로운 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 위의 內賜記書名에서 말한 御筆孟子諺解도

다른 孟子諺解와 구별하기 위하여 추가로 御筆이란 冠稱을 卷頭書名에 붙일 예다. 그런데, 冠稱을 줄이거나 덧붙여 卷頭書名과 달라진 경우에도 目錄에서는 반드시 卷頭書名을 註記하고, 달라진 書名の 根據가 제시되어야 한다. 索引에서 그러한 모든 書名이 검색되도록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으로 諺解書와 口訣書의 書名과 지나치게 긴 書名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다른 책과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되도록 書名은 간단히 하여야 한다. 혼동의 염려가 있다면 간단한 書名에 諺解와 口訣을 附記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原則으로서 中世 國語資料인 古書에 국한하여 그 書名을 정리하여 하나의 試案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試案의 書名은 國語學界에서의 慣用을 크게 배려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와 다른 卷頭書名, 版心書名, 外題등으로 古書目錄에 나오는 것과 標記書名の 根據가 되는 것은 괄호 안에 附記하였다.¹⁰⁾ 書名은 諺解書와 口訣書로 나누어서 가나다順으로 배열한다.

I. 諺解書

簡易辟瘟方(頭末, 心: 辟瘟方)

誠初心學人文諺解(頭: 誠初心學人文, 心: 初[1577년 版] 初心[1583년 版])

救急簡易方(頭末序, 心: 簡易方)

救急方諺解(頭: 救急方)

金剛經諺解(頭: 金剛般若波羅蜜多經, 心: 金剛經)

金剛經三家解(頭外: 金剛般若波羅蜜多經, 心: 金剛經三家解)

南明集諺解(頭: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心: 南明, 外: 南明集)

內訓(頭心)

論語諺解(頭心)

10) 괄호 안에 사용된 약호를 나타나는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頭: 卷頭書名, 心: 版心書名, 外: 外題, 箋: 箋文書名, 凡: 凡例書名,

末: 卷末書名, 賜: 內賜記書名, 序: 序文書名

記述 방식은, 翻譯小學으로 예를 들면 괄호 안의 頭末으로써 標記書名이 卷頭와 卷末에 나타남을 보이고, 이어 版心書名으로 小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 楞嚴經諺解(頭: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心:楞嚴經, 外:大佛頂首楞嚴經, 箋:首楞嚴經)
- 大學諺解(頭心)
- 杜詩諺解(頭:分類杜工部詩, 心:杜詩)
- 孟子諺解(頭心)
- 牧牛子修心訣諺解(頭:牧牛子修心訣, 心:修心訣)
- 蒙山法語諺解(頭:蒙山和尚法語略錄, 心:法語)
- 發心修行章諺解(頭:發心修行章, 心:章[1577年版]發心[1583年版])
- 百勝抄解(頭心)
- 翻譯老乞大(頭心:老乞大, 凡:翻譯老乞大朴通事)
- 翻譯朴通事(頭心:朴通事, 凡:翻譯老乞大朴通事)
- 翻譯小學(頭末, 心:小學)
- 法華經諺解(頭:妙法蓮華經, 心:法華經)
- 佛頂心經諺解(頭:佛頂心[陀羅尼 等]經, 末:佛頂心經, 心:佛頂, 外:觀音經)
- 四法語諺解(頭心:法語, 末:四法語)
- 三綱行實圖(箋, 頭:三綱行實[孝子 등]圖, 心:三綱[孝子 등]圖, 賜:三綱行實)
- 三壇施食文(頭, 心:施食文)
- 釋譜詳節(頭心序)
- 禪家龜鑑諺解(頭心:禪家龜鑑)
- 續三綱行實圖(箋, 頭:續三綱行實[孝子 등]圖, 心:續[孝子 등]圖)
- 小學諺解(頭心)
- 新增類合(末序目, 心:類合)
- 心經諺解(頭:般若波羅蜜多心經, 心:心經)
- 阿彌陀經諺解(頭:佛說阿彌陀經, 心:阿彌陀經)
- 野雲自警諺解(頭:野雲自警序, 心:自[1577年版]自警[1583年版])
- 呂氏鄉約諺解(頭:朱子增損呂氏鄉約, 心賜:呂氏鄉約)
- 永嘉集諺解(頭:禪宗永嘉集, 心:永嘉集)
- 靈驗略抄諺解(頭末:靈驗略抄, 心:五大)¹¹⁾
- 瘟疫易解方(頭, 心:易解方)
- 龍飛御天歌(頭心)

11) 版心書名이 전혀 다른 것은 五大眞音에 合部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말할 卷冊의 논의를 참조할 것.

- 牛疫方(心, 頭:牛馬羊猪染疫治療方)
 圓覺經諺解(頭: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心:圓覺經)
 月印釋譜(心序, 頭: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六字神呪諺解(頭: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外:六字呪)
 六祖壇經諺解(頭:六祖大師法寶壇經, 心:壇經)
 恩重經諺解(頭:佛說大報父母恩重經, 心:恩)
 二倫行實圖(頭目序, 心:二倫圖)
 正俗諺解(頭, 末:正俗篇, 心:正俗)
 重刊警民編(末序, 頭心:警民編)
 中庸諺解(頭心)
 眞言勸供(頭, 心:供養)
 千字文(頭心)
 七大萬法(末, 心:七大)
 孝經諺解(頭心)
 訓蒙字會(頭序心)
 訓民正音諺解(頭:世宗御製訓民正音, 末:訓民正音, 心:正音)

II. 口訣書

- 句解南華經(한글)口訣¹²⁾(頭:句解南華眞經, 心:莊子)
 南華經(한글)口訣(頭:南華眞經大文口訣, 心:南華口訣)
 論語大文(한글)口訣(頭)
 童蒙先習(借字)口訣(頭:童蒙先習, 心:童習[1587年版])
 童蒙須知(借字)口訣(頭:童蒙須知, 心:須知)
 書傳大文(借字)口訣(頭:書傳大文, 心:書大文)
 小學集說(한글, 借字)口訣(頭心:小學集說)
 詩傳大文(借字)口訣(頭心:詩傳大文)
 詩正文(借字)口訣(頭心:詩正文)
 呂氏鄉約(借字)口訣(頭:朱子增損呂氏鄉約)
 禮記大全(한글)口訣(頭心:禮記集說大全)
 圓覺經(한글)口訣(頭: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心:圓覺經)

12) 口訣이 한글이나 借字냐에 따라 書名의 口訣 앞에 한글 또는 借字를 괄호 안에 보충한다. 같은 原文에 한글과 借字로 口訣이 달린 책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한글과 借字를 함께 보충한다. 그런데, 이 보충은 國語史資料로서의 性格을 書名으로 보이려는 것이나, 目錄에서는 註記로 함이 좋을 것이다.

周易大文(借字)口訣(頭心:周易大文)

周易大全(한글)口訣(頭心:周易傳義大全)

周易傳義(한글)口訣(頭心:周易傳義)

地藏經(借字)口訣(頭:地藏菩薩本願經, 心:地)

孝經(借字)口訣(末:孝經)

IV

인용하려는 古書의 書名이 정하여진 다음에는 卷次의 문제가 있다. 古書의 分量이 아주 작아서 1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張次만 헤아리면 되지만, 分量이 커서 여러 책으로 되었거나 1책으로 되었으나 分卷이 된 경우에는 卷次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간혹 卷次와 冊次의 혼동, 다시 말하면 卷冊의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다.¹³⁾ 원래 冊은 竹簡을 모아서 노끈이나 실로 엮은 것이고, 卷은 絹織物에 글씨 써서 말아 놓은 것으로서, 다같이 책 곧 圖書를 뜻하였다. 오늘날 洋裝書의 分量을 말할 경우에 卷과 冊을 혼용하는 것은 그 원래의 用法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國語史資料인 古書에서는 卷冊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卷은 內容에 따른 分類이고 冊은 外形에 따른 名稱인 것이다. 같은 刊本이라면, 卷數는 일정하지만 冊數는 裝訂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1권인 金剛經疏解가 1책 또는 2책, 2권인 四聲通解가 1책 또는 2책, 3권인 三綱行實圖가 1책 또는 3책으로

13) 이러한 사실은 각종 目錄에서 보게 된다. 비교적 일관된 記述을 보이는 최현배(1961), 東國大佛敎文化研究所(1976) 등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나타난다. 中庸諺解 1책, 心經諺解 1권 등으로 한 것과 圓覺經諺解 10권으로 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國語史資料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예는 吏讀資料인 典律通補의 「吏文」이다. 이것은 권 6이 끝난 뒤, 제 4책인 附編에 실려 있는데, 권 4의 附錄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小倉進平 1940: 310, 최현배 1961: 225).

裝訂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古書에서의 資料出處를 보일 경우에는 卷次만이 문제된다.

卷次는 書名과 함께 卷頭, 卷末, 版心에 꼭 같이 나타난다.¹⁴⁾ 外題와 書根題에도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거기에는 卷次보다 冊次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卷次의 표시는 보통 數字로써 하는데, 2,3권일 경우에는 上下 또는 上中下로써도 행해진다. 卷次의 표시를 目錄記入에서 아라비아 數字로 고칠 것을 原則으로 한다(千惠鳳 1970:103-104)고 하나, 圓覺經諺解와 內訓(1573년版)에서는 數字와 上下가 복합되어 卷次를 나타내고, 三綱行實圖에서는 孝子, 忠臣, 烈女圖가 卷次를 나타내므로 原典의 표시대로 하는 것이 좋다. 國語史資料인 古書는, 釋譜詳節, 楞嚴經諺解, 圓覺經諺解등과 같이 거의 모두 卷次가 바뀌면 張次도 새로 시작된다. 따라서 冊次는 무시하고, 卷次와 張次를 原典에 있는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卷次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약간의 例外가 있다.

먼저, 卷次가 달라져도 張次는 계속되는 古書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에도 두가지가 있다. 첫째, 佛頂心經諺解는 3권으로 分卷되어 있는데, 版心書名에 그것도 반영되지 않고 張次도 계속된다. 本文에서 卷次가 바뀌어도 行만 바뀔 뿐이고, 張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은 張次의 표시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둘째, 上下 2권인 禪家龜鑑諺解는 卷次가 版心 書名에도 반영되고 卷次가 바뀌면 張도 새로이 시작되지만 張次만 계속된다. 이것은 卷次와 張次를 함께 보이는 것이 책 體裁와 內容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14) 編纂이 아주 소홀하게 된 책에서는 이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儒賢必知는 文卷套가 끝난 다음에 「儒賢必知卷上」이라 있고, 장을 바꾸어 通文套가 시작된다. 이로 보면 上下 2권으로 보인다. 그러나, 凡例(3a)와 本文의 卷頭(1a)에는 「卷之全」이라 있고, 題簽, 版心, 卷末(48b) 등에는 卷次 표시가 없는 점, 따라서 「卷下」란 卷次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또 張次도 계속되므로 不分卷 1책이라 할 것이다. 文卷套 다음의 卷次표시가 잘못(그 理由에 대하여는, 다른 곳으로 미룬다.)이다. 그것은 어떻든,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編纂의 소홀로 말미암은 卷次의 혼란은 논외로 한다.

다음으로, 卷次의 區分은 명시되지 않으면서 張次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論語大文口訣이 그러한 예다. 모두 78장의 책인데, 7권으로 分卷된 것과 같이 張次는 나뉘어져 있다. 곧 學而, 爲政이 장 1~6, 八佾, 里仁, 公治長이 장 1~10 등으로 된 것이다. 卷頭書名인 論語大文口訣(장 1a1, 장 6a4, 등)만 나타날 뿐이고, 卷次의 표시는 없다. 版心에는 書名이 아니라, 篇名만 나타난다. 그리하여, 學而 1~3, 爲政 4~6, 八佾 1~4, 里仁 5~6, 公治長 7~10 등으로 張次와 결부된다. 古書目錄에서 卷數를 굳이 밝힌다면 7권 1책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引用資料의 出處를 밝힐 경우에는 卷次가 아닌 版心の 篇名과 張次로 하여야 할 것이다.

卷次 표시와 비슷한 문제로서, 독립된 1부의 책이 다른 책의 附錄으로, 또는 대등하게 合綴되어 1책으로 간행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는 바와 같이 月印釋譜의 卷頭에는 訓民正音諺解가 合綴되어 간행되었다. 즉 月印釋譜 권 1, 2와 訓民正音諺解가 合部 1책인 것이다. 그러나, 訓民正音諺解는 卷頭書名과 版心書名, 그리고 張次로 보면 완전히 독립된 책이다. 分離하여 裝訂만 하면 하나의 古書가 될 수 있다. 실지로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朴勝彬舊藏本인 訓民正音諺解(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所藏)다. 이러한 책은 그 書名을 卷次와 같이 다루어서 무방하다. 靈驗略抄諺解도 이와 비슷한 책이다. 五大眞言과 合部로 간행되었는데, 版心書名이 五大眞言과 같은 「五大」인 점이 그것을 말한다. 그러나, 張次는 독립되어 표시되어 있을 뿐아니라(따라서, 五大眞言의 張次와 중복된다), 현재 전하는 것은 별도의 책으로 裝訂된 것이다. 이 책의 出處도, 版心書名은 무시하고 卷頭書名에 따라 靈驗略抄諺解와 張次만으로 충분한 것이라 생각된다.

3부 이상의 책이 合部 1책으로 간행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字解, 老乞大集覽, 朴通事集覽의 合部인 老朴集覽이 그 한 예다. 老乞大集覽과 朴通事集覽은 각각 다시 2권과 3권으로 分卷되어 있

는데, 여기에서 資料를 인용한다면 書名, 卷次와 張次를 밝혀야 할 것이다. 字解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卷頭書名으로는 單字解와 累字解로 分卷이 되었으나, 卷末과 版心書名이 字解이며 張次가 계속되어 있다. 目錄外題도 老乞大, 朴通事와 함께 字解뿐이다. 따라서 이의 出處는 老朴集覽이란 合部인 책의 書名에, 字解란 書名과 張次로써 표시된다. 原典에서 字解 1~10으로 된 것을, 影印本에서 單字解 1~7, 累字解 1~3으로 고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李丙疇, 1966 참조).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諺解의 合部 1책, 이른바 初發心自警文諺解도 3부의 책으로 된 예다. 현재 1577년版(松廣寺開板)과 1583년版(龍仁瑞峯寺開板)의 異本이 전하는데, 卷頭와 版心書名은 모두 독립되어 있으나, 張次는 전자가 계속되고 후자가 각기 독립되어 있다. 禪家龜鑑諺解의 경우를 원용하여, 이 책도 異本에 상관없이 다같이 3개의 書名과 張次로써 出處를 나타낼 것이다.

이상에서 分卷된 책과 함께, 여러 책이 合部 1책으로 된 경우의 出處 표시를 實例로 살펴본 것이다. 書名과 마찬가지로 卷次의 표시도, 되도록 간명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卷次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간행할 때부터서의 缺卷에 대하여 附言하여 두려고 한다. 國語史資料로서는 吏文輯覽이 그러한 책이다. 권 2~4와 續集으로 된 1책인데, 奎章閣目錄에서 零本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缺卷은 傳承過程에 의한 것이 아니다. 凡例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崔世珍이 舊抄吏文 권 1은 吏文學習用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권 2~4만으로 吏文을 간행하고, 거기서 난해한 語句를 가려 註釋을 한 吏文輯覽을 만들고 보니, 당연한 결과로 권 1의 缺卷이 생긴 것이다. 僞書가 아니라면, 吏文輯覽에는 권 1이 있을 수 없다. 零本과 原缺卷인 책은 엄격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卷次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덧붙인 것이다

V

國語史研究은 國語史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그 資料는 거의 古書로부터 얻어진다. 지금까지 國語學界에서는 古書가 각기 하나의 書名과 일정한 卷冊으로 동용되고 있다.¹⁵⁾ 그러나, 다른 分野에서는 사뭇 다른 書名이 있는가 하면, 책에 따라서는 卷冊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國語史資料인 古書에 국한하여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結論을 지을까 한다.

먼저 書名에 대하여, 하나의 古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사실은 書誌學의 상식이다. 거기에서는 여러 書名에서 卷頭書名을 기준으로 古書目錄을 편찬할 것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國語學界에서는 이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圖書館에서 겪는 불편이 큰 것이다. 이를 지양하기 위하여서는 國語學界에서도 書名을 卷頭書名으로 통일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卷頭書名은 지나치게 긴 것이 있고, 대부분이 諺解와 口訣의 명시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國語史資料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책과 구별될 書名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卷冊의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어서, 책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따르면 거의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例外로서 책에 나타난 卷次만으로는 어려운 古書가 있다. 또 2부 이상의 책이 合部로 간행된 경우의 문제도 있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사실의 지적과 함께 卷次의 표시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였다. 書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명하면서도 出處를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解決方案은 결과적으로 國語學界의 慣用이 최

15) 이 記述은 書名의 약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楞嚴經諺解, 訓民正音諺解가 각기 楞嚴, 楞諺, 그리고 訓正, 正音, 訓諺등의 약호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이 점, 國語學界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한 반영되어 있다. 書誌學界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國語史資料인 古書에 관한 한, 우리의 提案이 충분히 참작되기를 기대한다. 그 古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들이 활용할 수 없는 古書目錄은 目錄으로서의 效能을 상실한 것이다. 古書目錄이 目錄을 위한 目錄이 아니라, 관계 研究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提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書名이 副出로 등록되어서 索引으로써 쉽게 검색되도록 되어야 한다. 國語學界가 아닌 다른 分野에서도 비슷한 사실은 있을 것이다. 古書目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書誌學者들은 이러한 면에 대한 부단한 配慮를 가져 주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書誌學界에 국한하여 古書의 書名과 卷冊의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古書目錄이 書名은 卷頭書名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 상당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 卷冊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혼란은 있다. 古書目錄에서만이라도 書名과 卷冊 표시 방법의 統一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書誌學用語조차 일부 혼란이 있는 처지에서, 그 統一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古書目錄의 效能을 위하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 다른 學問分野와 연관된 書名은 그 分野의 專門家와 협의한 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한 協議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이 글에서 얻는다면 우리의 바람은 달성된 것이다. 이 글의 意圖가 거기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國學資料保存會(1974), 韓國典籍綜合目錄 I (山氣文庫), 서울: 國學資料保存會.

東國大佛敎文化研究所(1976),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東國大出版

- 部.
- 白麟(1966), 古書目錄規則, 서울:서울大圖書館.
- 서울大圖書館(1966),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서울:서울大圖書館.
-(1973), 一般古圖書目錄, 서울:서울大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서울大圖書館.
- 서울大東亞文化研究所(1965),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서울大東亞文化研究所.
- 安秉禧(1979),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奎章閣 3.
-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東京:刀江書院.
- 李丙峙(1966), 老朴集覽考, 서울:東國書林.
- 千惠鳳(1970), 古書分類目錄, 서울:韓國圖書館協會.
-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서울:정음사.